

주요 내용

□ 부문별 전망

- (고용) 경제 성장의 지속과 생산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로 실업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(소비)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등 전반적인 가계 소득 여건이 향상으로 경기 후행적인 非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(투자) 설비투자의 증가세 지속과 함께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되나, 최근 2년간의 국내건설수주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- (대외거래) 수출 여건도 나쁘지 않으나, 경기 회복과 수출 확대가 수입 급증을 유발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1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(물가)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, 환율 하락세가 다소 상쇄작용을 하여,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- (환율) 경상수지 흑자,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 달러 공급 우위의 지속으로 원/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나,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의 불안정성은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됨
- (금리) 고성장에 따른 금리 상승 기대감과 총선후 통화 긴축 등으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나, 정부의 안정 의지가 상승을 억제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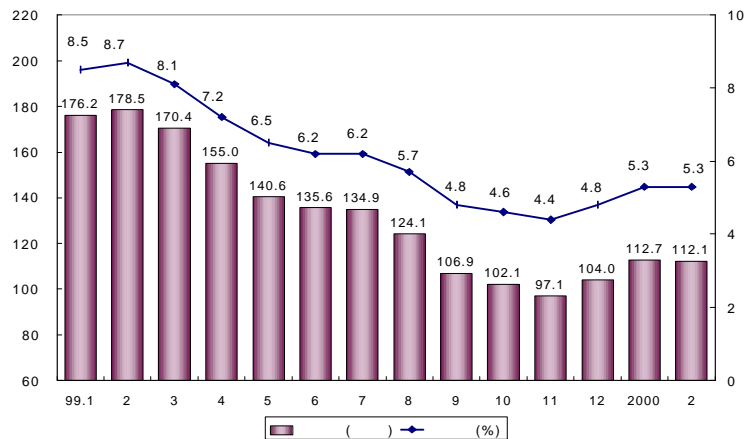
III. 부문별 전망

1. 실물 부문

○ 고용

- (동향)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업률은 99년 2월 중 지난 66년 이후 최고치인 8.6%(실업자 수 178.1만 명)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됨
- 99년 말 현재 실업률은 4.8%로 연초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경기 회복으로 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
- 1~2월 중의 실업률 상승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함

< 실업률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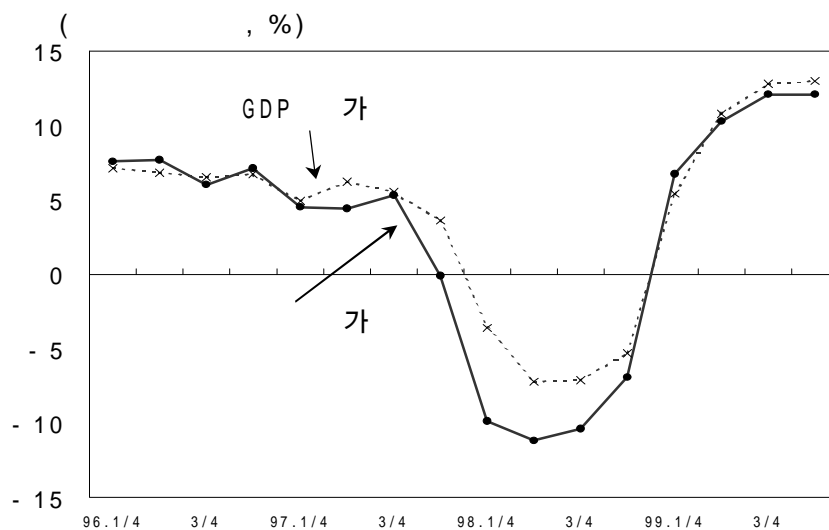


- (전망) 2000년 이후에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고용 흡수력이 큰 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할 것임
- 반면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노동 절약적 기술들이 도입되고 경제 전반의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
- 여기에 그동안 구직난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던 실망노동자들과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여성이나 고령층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공공근로 사업도 대폭 축소되면서 실업률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

○ 소비

- (동향) 1999년 중 총소비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일반 가계의 소비 심리 호전으로 8.5% 증가하여 전년도의 급속한 위축(연간 9.8% 감소)에서 벗어남
 - 외환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승용차, 컴퓨터, 전자제품 등 주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가계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소비는 10.3%의 증가율을 기록함
 - 특히, 통신비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(전년대비 33.4% 증가)
 - 한편, 정부지출은 인력감축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해 전년대비 0.6% 감소함
- (전망) 2000년 들어서도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등에 의한 전반적인 가계소득 여건의 향상으로 소비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경기 후행적인 비내구재 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동차,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는 이연소비가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
 - 또한 물가 불안감 확산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위축되고 있고 99년의 기술적 반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에는 소비 증가세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
 -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총소비 및 민간소비는 각각 6.6%와 7.4%의 비교적 건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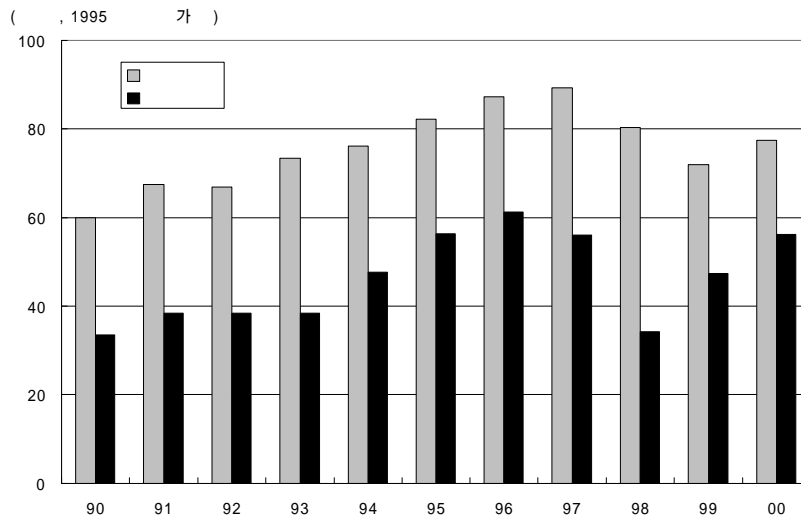
<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>



○ 투자

- (동향) 설비투자는 경기 회복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건설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
- (설비투자) 99년 중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8.0%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, 성장 기여도는 수출과 소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회복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
- (건설투자) 유일하게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서, 98년과 99년의 건설수주 부진으로 건설 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

<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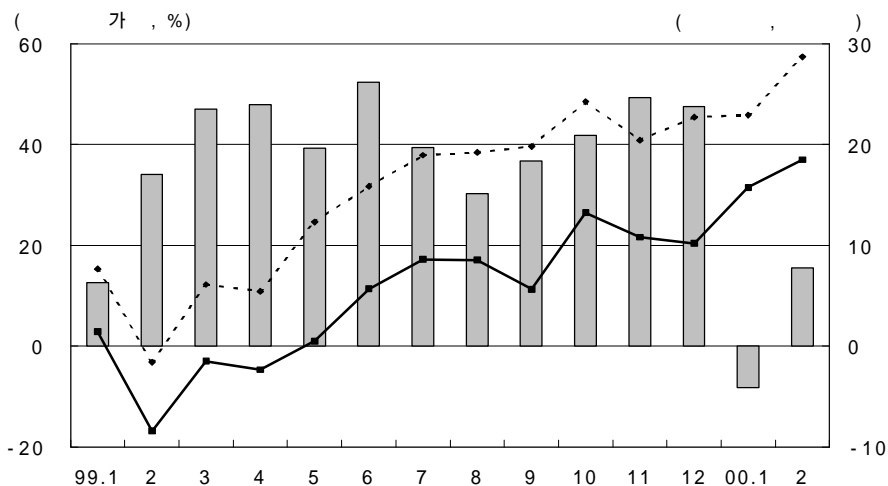


- (전망)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수출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반전되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임
- (설비투자) 경기 활황과 수출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, 99년 설비투자의 규모는 94년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아직 설비투자의 증가 여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됨
- (건설투자) 주택 등 대규모 내구재에 대한 민간의 구매력이 회복되고 있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증가세가 예상되나, 향후 1~2년간 건설투자에 영향을 주는 98~99년 중의 건설수주가 지나치게 부진한 점이 증가세를 제한할 것임

○ 대외거래

- (동향)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,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음
- (수출) 2000년 들어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, 엔화 강세, 반도체 가격 상승, 유가 강세에 따른 대중동 수출 호조 등으로 30%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- (수입) 국내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국제 유가 상승도 수입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음
- (무역수지) 수입 증가에 따라 2000년 1월 중 무역수지가 27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되었으나, 2월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여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음

< 수출입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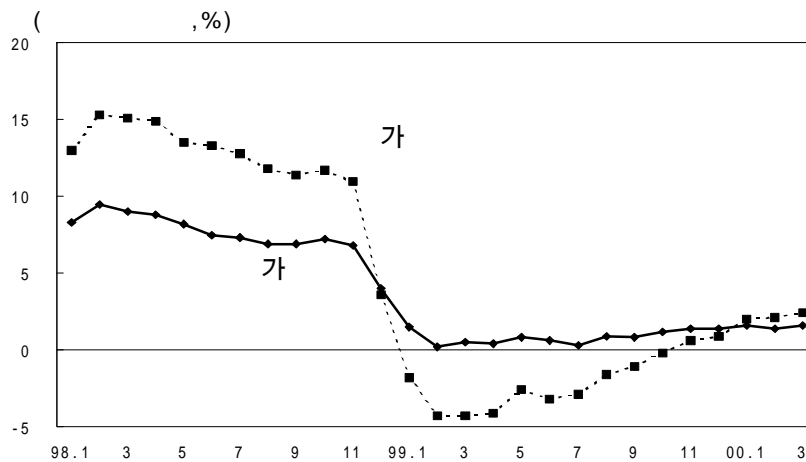


- (전망) 대외 여건 호조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 폭증세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할 것임
- (수출) 미국 경기의 호조세 지속, 아시아를 비롯한 중남미와 중동 등의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가 전망되나, 원화 강세가 다소 걸림돌이 될 것임
- (수입)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라 2/4분기 중 30%대, 하반기에는 10%대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됨
- (무역수지) 수입 급증에 따라 연간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를 넘지 못할 전망임

○ 물가

- (동향) 환율 하락과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, 그리고 98년의 물가급등에 따른 반사효과에 힘입어 99년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저치인 0.8%를 기록함
 - 2000년 1/4분기에도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.5%(1월: 1.6%, 2월: 1.4%, 3월: 1.6%) 상승하는데 그쳐 작년의 물가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
 - 한편 올해 1, 2월 중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은 석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2.7%, 3.6% 상승함
- (전망) 공급 측 요인이 물가 불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
 - 석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앞으로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
 - 하지만 환율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의 확고한 물가 안정 의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(3.0%)에 근접한 3.0%~3.5% 수준(3.2%)을 기록할 전망이다

< 최근 물가 동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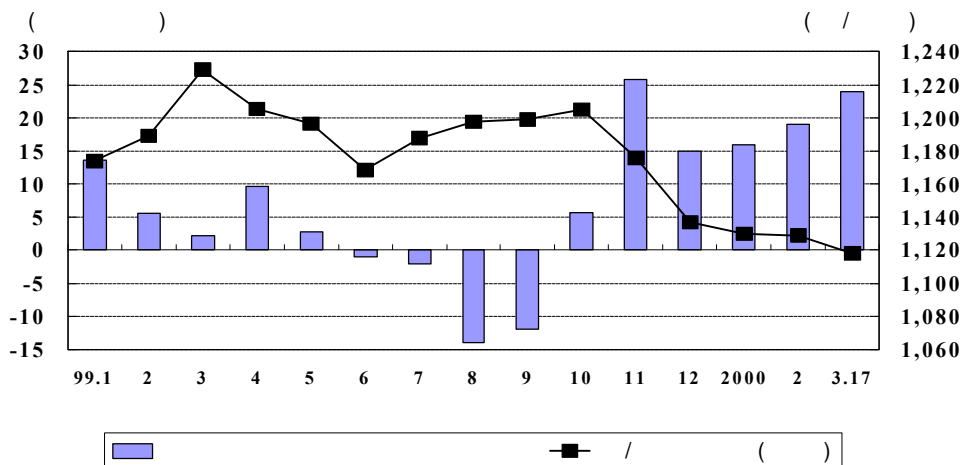


2. 국내 금융 부문

○ 원/달러 환율

- (동향)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한때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1,108원까지 하락함
 - 한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하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
- (전망) 2000년에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/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
 -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수입 수요의 대폭 증가로 99년의 268억 달러에서 1/2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, 한국의 국가 신인도 제고로 외국인 직·간접 투자의 순유입세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임
 - 따라서 2000년 원/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연말쯤에는 1,05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2000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, 제2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파장이 전체 금융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환율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

< 원/달러 환율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추이 >



○ 금리

- (동향) 정부의 한자리수 금리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인플레이션 기대 및 미국의 추가적인 단기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라 다시 두자리수로 진입하여 소폭 상승세
 - 원유 등 수입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불안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채권안정기금이 보유하던 중장기 채권이 다른 채권투자기관으로 인수되어 전반적인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음
- (전망) 고성장에 따른 금리 상승 기대감과 총선후 통화긴축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소폭 상승하겠으나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 등 하락요인도 무시할 수 없음
 -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기업이 자금을 CP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가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채권시장 안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
 - 정부의 채권시장 활성화 정책 및 금리안정 의지와 경기 및 물가 등 경제지표가 주는 금리상승압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

< 최근 금리 동향 >

